



열두번째 이야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선교사 선교사역② 스리랑카]



최악의 경제난과 정권 퇴진 시위의 외침이 가득하며 분열로 인한 폭력으로 사상자가 나오는 등 두려움과 위기로 둘러싸인 스리랑카에 대한 소식을 박영근 선교사님을 통해 들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BEE 가족이 함께해요.

종이 부족해 학생들 시험도 못 보다

어제(3월 20일) 현지 신문과 경향신문, 연합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부채와 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스리랑카는 서부주(수도 콜롬보)에서 오늘(21일)부터 일주일간 시행 예정인 학기말 시험이 심각한 종이 부족으로 무기한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인쇄업자들이 필요한 종지와 잉크를 수입하기 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결국 전국 450만 명 학생 중 약 3분의 2 정도 학생들이 시험을 못 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제작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경제난으로 타격을 입은 학생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 넣으려 줄지어 선 차량과 사람들

지금 스리랑카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캔디타운은 휘발유를 넣기 위해 줄을 선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정부의 바닥난 국가 재정

으로 인해 기름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해서 대부분 주유소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문이 열려 있는 주유소에는 수십 대의 차량과 빈 기름통을 든 사람들이 거의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습니다. 가정용 가스도 공급이 잘 되지 않아 가스를 사기 위해 도로변에 놓인 가스 실린더 수십 수백 개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얻기 위해 2-3일씩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정전입니다. 매일 4-5시간 정전이 되고, 하루 전에 정전 시간을 알려주는데도 그 시간이 지켜지질 않아 덜 익은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1948)한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민들의 철야 시위



지난주(4월 12일) 스리랑카 정부는 외환보유고(19억불)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어 대외채무(510억불)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재무장관과 일행이 어제 IMF의 지원(40억불)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지난주는 스리랑카 새해(New Year)로 각종 연례 설맞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려야 하지만 올해는 기름, 가스, 설탕, 우유, 약 등 일반 생필품을 얻지 못한 시민들의 감정이 폭발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전국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도 일어

나고 있습니다. 수도 콜롬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철야 시위가 오늘로 1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총리가 시위대 대표와의 대화를 제안해 왔지만, 시위대는 대통령 사임과 대통령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정부 직위에서 즉시 사임하고 의회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라자팍사 가문의 지난 17년간의 부정부패 통치로 인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로 전락해 버린 스리랑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국민들이 일상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있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유혈시위 사태가 일어난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현 정부의 퇴진을 외치며 31일째 평화적 시위를 외쳐 오던 9일 오후, 스리랑카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달간의 평화 시위는 마힌다 총리를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 평화적 시위 장소가 폭력의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마힌다 총리가 어제 오후 총리직을 사임하기 전 오전에 전직 장관과 총리 마힌다의 연설을 듣고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폭군으로 변하여(일부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마약을 한 사람들도 있다 함) 모임을 마친 후 대통령 집무실 앞 '평화의 거리'로 뛰쳐 나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무작위로 휘둘렀습니다. 또한 마힌다 총리 지지자들은 평화적 시위를 위해 전국에서 타고 온 버스와 승용차들을 무작위로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들의 무작위 폭력과 폭동으로 인해 평화적 시위를 하던 210명 이상이 인근 콜롬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시위대원들의 피를 본 평화 시위대들이 다시 폭군으로 변하여 여당 국회의원들의 집을 불태우고 약탈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총리는 사임하였지만 총리 지지자들과 평화지지자들 사이의 폭동은 오늘 이 시간까지 전국적으로 거세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일 대통령이 새 총리로 라닐을 임명하였습니다. 라닐은 1993년 첫 총리가 된 이후 이번이 6번째 총리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스리랑카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잘 극복하여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글쓴이 박영근 선교사]

현재 스리랑카에서 사역 중이며 TIM 두란노 소속으로 1999년부터 온누리 국제학교를 13년간 섬겼고 지금은 아내 추행란 선교사와 함께 현지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BEE 세미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황금방울새의 성모

(라파엘로, 1506-1507년,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3대 천재 예술가 중 한 명인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da Urbino, 1483-1520)가 친구를 위해 그린 이 그림은 1574년 지진으로 저택이 붕괴하면서 17개 조각으로 깨지는 수난을 겪었다. 500년 후 10여 년에 걸쳐 복원하였다. 성모의 온화한 얼굴과 아기 예수, 아기 세례 요한이 들고 있는 방울새. 가시나무 숲에 살며 엉겅퀴를 먹는다는 방울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의 이마에서 박힌 가시를 부리로 떼어냈다고 한다. 그때 피가 한 방울이 튀어 방울새 날개에 붉은 반점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방울새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게 되었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꺾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조문상 선교사님의 탄자니아 졸업식(5월 7일-15일) 일정 속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3. 14일(토) 박지웅 선교사님과 브라질 목회자님들이 BEE 기도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브라질 BEE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해요.



4. 부산 BEE 5월 14일(토) 11시 성지교회에서(협력 교회) 대면 BEE 기도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모임 후 성지교회(강병훈 장로님 섬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